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6월 지계(持戒)의 달

- 계가불자와 계율
- 지계 없는 수행의 위험
- 사회윤리로서의 지계
- 일상 속에서의 지계

사회윤리로서의 지계



산푸르고 물맑다

◇환경보호는 '불살생계'의 사회적 실천이다. 사진은 지난 3월 있었던 자연과 사찰 수행환경 보전을 위한 법물교도 대회 모습.

"오제는 단지 부처님의 제자들이 몸을 닦고 도를 행하는 규약으로 삼은 것인데, 국가 경제나 민생의 문제, 또는 세계 평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불자가 지켜야 할 세속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표적 경전인 <불살생경>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자 부처님께서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모든 중생들에게 네 가지 공양(음식, 의복, 외구, 약양)을 백년 동안 보시하더라도,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계를 지킨 공덕만 같지 못하니, 계법은 정법(正法)과 비정법(非正法)의 온갖 경계

고 이해해야 옳다. 이 '긍정적 실천'의 의미 속에는 '지계'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금계가 아니라 고도의 사회윤리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오계 가운데 '불살생계'는 살생을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모든 생명의 존중을 요구한다. 불교환경교육원,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 지리산살리기 담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 불교환경연대 등 90년대 들어 불살기 시작한 불교계 환경 운동은 오계 가운데서도 기본인 '불살생계'의 적극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오계 지키면 사회 절로 맑아져

에 두루 통용되기 때문이다"고 답한다.

불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부처 되기'다. '부처 되기'는 부처님을 닮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바로 '지계'인 것이다. <화엄경>에는 "계는 무상보리의 근본이다"는 말이 나온다. '부처님을 닮는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계를 받아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불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 계율의 근본이 바로 오계다. 가장 간단하지만 불교의 모든 계는 오계에서 나온다. 오계는 흔히 금지하는 말로써 '~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표현되지만, 무엇 무엇을 실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이자 광주에선 처음으로 주남호보전협의회를 만들기도 한 현교 스님은 "불교의 환경 운동은 간단히 말하면 '불살생계의 사회화'라고 말할 수 있다"며 "승단의 계율이 사회적 계몽과 실천 덕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해인총림 울림장 해능 스님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고, 가정의 근본은 구상된 각자의 수신에 있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자신의 몸을 닦는 것은 바로 오계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오계의 실천이야말로 이 사회를 맑고 밝게 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6월 19일(수)

■대구불교대학 '찬불가' 공연 = 대구불교대학이 개교 10주년을 맞아 찬불가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 이리시네' 등 12곡의 찬불가와 법현스님의 첼로공연, 금강사물놀이단의 초대공연 등 다채로운 불교음악을 감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후 7시 30분 대구시민회관 대강당. (053)256-3725

■종교지도자학 '대한민국종교미술제' = '관세음보살도', '서원의 탐', '은혜사 계곡', '선(禪)에 든 비행기'...

한국종교지도자학회의가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에서 유병작가 16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송오스님, 원성

신행 캘린더

스님, 영인스님 등의 작품 27점도 전시된다. (02)766-4776

6월 20일(목)

■불교상담개발원 '정기교양강좌' = '세상 곁에는 한 쌍 이혼'. 현대사회에서 부부 싸움, 이혼 등 가정불화는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 2층에서 비법적인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상상과 현실 사이' 강좌를 마련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종수 원장이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무료. (02)737-8803

■마야문화원 '아함경 강좌' = 부처님 말씀을 최초로 기록한 경전



◇마야문화원경전강좌.

인 <아함경> 속에 나타난 '근본불교의 사상을 공부하는 강좌. 마야문화원은 매일 셋째주 목요일마다 오전 8시 본원에서 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 안승준 씨가 진행하는 '아함경' 무료강좌를 마련했다. (02)722-1050

6월 22일(토)

■신라문화원 '달빛역사여행' = 찬란한 달빛 속에서 느끼는 천년 신라의 정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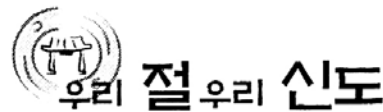
6월 23일(일)

■광주불교교육원 '불교 유적 답사' = 한여름에 맞는 그윽한 산사의 향기. 광주불교교육원은 '자장유사의 자취를 찾아서'를 주제로 양산 통도사로 떠나는 불교문화 유적답사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전남불교문화연구원 이순교 법사의 안내로 진행될 예정. 출발은 오전 8시 광주시 계림동 교육원 앞. 참가비는 2만 3천원. (062)228-9098

6월 25일(화)

■묘주스님 '금강경 강의' = 수원 포교당 거사회가 오후 7시 30분 수원포교당 관음전에서 묘주스님을 강사로 '금강경' 강의를 개최한다. 무료. (031)245-9670

"독거노인 위한 쉼터 마련 주력"



인천 옹누리선원 임진옥 포교부장

"우리 주변에는 가족들에게 소외된 채 버려진 노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부처님의 품안에서 편안히 쉬며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지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간 마련에 팔을 걷어붙일 생각입니다."

실제로 옹누리선원은 개원한지 1년 6개월 밖에 안돼 절 살림이 넉넉지 않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푼데 한층 한층 더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비의 쉼터'를 마련했다. 이에 머물지 않고 올해 안으로 인천 지역에 5곳 정도의 쉼터 개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임진옥 보살(왼쪽)이 옹누리선원을 찾은 불자에게 사찰의 기초예절을 알려주고 있다.

"배운것 실천" 초심자 안내부터 시작

신도1인 10이웃 돕기에 적극 동참

노인복지발사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임 보살이 옹누리선원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옹누리선원의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을 보고 부처님법을 배워야겠다고 발심을 하면서부터다. 우선 기초교리와 습의의식, 참선 등을 강의하는 '인성불교 교양대학'을 통해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배운 것을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선원을 찾는 초심자들의 안내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천 지역은 기독교세가 강하고 더군다나 옹누리선원은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기에

찾는 신도수도 얼마 없었어요. 그랬기에 선원을 찾는 이웃 주민들에게 포교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임 보살의 꾸준한 노력 덕택이었을 거라. 1년이 지나자 신도가 2백명을 넘어섰다. 포교환경이 열악한 인천 지역에서는 놀랄만한 일이었다. 아직도 옹누리선원을 처음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임 보살일 정도로 임 보살은 초심자들의 신행담에 열심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30~40대 보살이 주 신도인 옹누리선원에서 힘들

고 지켜 선원을 찾는 이들에게 등을 다독여주며 인생상담까지 해주는 등 큰 언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낮에는 직장인 인천시 계양구청에서 일하는 탓에 선원에서 일하는데 제약을 받긴 하지만 범종아라든 선원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뛰어올 정도로 옹누리선원에서 없어서는 안될 임진옥 보살.

임 보살의 활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임 보살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정담당을 맡으면서 투명한 사찰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선원의 1인 1불우어웃 돕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임 보살이 다른 신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단순히 선원 일에 헌신적이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무차량회기도와 108배 기도, 경전 독송 등 1년 내내 진행되는

추천의 말

중연스님 옹누리선원장

임진옥 보살은 자기수행도 열심히 하고, 포교에도 헌신을 다하는, 옹누리선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신도입니다.

개원한지 2년도 안된 옹누리선원이 포교환경이 열악한 인천에서 인터넷 포교와 복지봉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임 보살과 같은 불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임보살은 '자비의 쉼터'를 개원할 때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이 가능한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모으시도록 다른 신도들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독거노인을 방문해 자선의 부모처럼 모시고 정성껏 봉사행을 펼치는 임 보살을 보면서 옹누리선원, 더 나아가서는 한국불교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 바쁜 일상과 신행활동 와중에도 틈틈이 기도와 불교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어 다른 신도들의 귀감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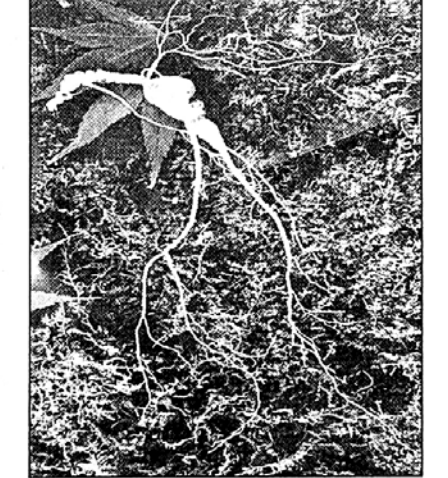
옹누리선원의 기도정진에 빠짐없이 동참하며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옹누리선원이 임 보살을 보배로 여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김주일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가적으로 불지름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0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瓊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장애,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부중,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약재하루는 스님 오늘날 衆生 求道와 佛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치 못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龍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對露 藥材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중산물품관리장검정발(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오가피를 아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십시오!!



국내최대 오가피 제재사 / 성광수씨 (주)수신오가피 대표

업체명	제품명	아칸토사이드 함량(㎍/g)
(주)수신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차골드	98.82
(주)한국자연과학	합박재 가시오가피 백두	16.52
(주)한국자연과학	합박재 가시오가피해피니스	7.47
(주)바이오코리안	고려가시오가피	15.49
파진바이오(주)	경희가시오가피	21.32
고려한방민내서남	실크오가피O	검출안됨
대전충남농생협	토종가시오가피	검출안됨
고려인성과학	토종아생가시오가피	7.00

*상기합합은 각 제품 1g에 들어있는 아칸토사이드 D의 함량입니다.

업체명	제품명	아칸토사이드 함량(1회복용분)
(주)수신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4957.75
파진바이오(주)	진성생성원	504.90

안녕하십니까? 국내최대오가피제재사 성광수입니다.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래들어 우후죽순으로 오가피 혹은 가시오가피를 사용했다는 제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렇게 많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원료가 없는 것을 알고있는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들제품들을 무차량으로 구입하여 분석해봤습니다. 그결과 너무나 경악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착오가 아닐까 재차, 삼차 분석해봤습니다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칸토사이드 D(Acanthoside D = Eleutheroside E)란 성분은 오가피의 지표물질로 삼고있는 오가피의 대표적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오가피의 제품은 가짜입니다. 또 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 정말로 제대로 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또 원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시오가피가 좋다고 선전해오던 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시오가피가 다른 오가피들보다 월등하게 좋으며, 그 이유로 아칸토사이드 D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하곤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이 만드는 제품에 최최제품보다 이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표시상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 오가피가 비싼이유가 없다면서 저제품보다 훨씬 싸고 선전하는 제품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제품과 같은 양의 오가피를 섭취할수 있으려면 표시상 보실수 있듯이 몇배에서 몇십배 되는 양을 더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뜻 믿으시겠습니까? 이 실험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업체에서는 시장에서 무차량으로 구입한 귀사의 제품과 저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청등 국가기관에 공동의뢰하여 공개적으로 실험할 것을 제의합니다. 참고로 이곳에 제대된 실험결과를 저희 실험실만이 아니라 국립대학교 2곳, 제약회사 1곳, 국가기관인 1곳에서 실험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비자들이께서는 오늘 개제된 제품위에 다른 오가피제품이 있다면 저희에게 실험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한 무료 성분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혀 오가피 또는 가시오가피를 수확하지도 않은오가피제품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겨우 몇천원짜리 불완전 재제품을 몇천원, 몇십만원으로 부풀려 광고하는 제품, 북한산양생이라 환원 좋다는 제품들에 더이상 현혹되지 마십시오. 품질은 정직하셨습니다. 앞으로 국내의 모든 오가피제품을 검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최대오가피제재사 성광수 올림.

문의전화 (02)447-9114